한동훈은 부산행, 이재명은 법원행… 엇갈린 행보

韓, 부산 금정구청장 필승 다지기… 6번째 방문
李, 대장동 배임 등 1심 공판… SNS서 지원 유세

오늘 10.16 재보선 '운명의 날'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여야 대표 발걸음이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을 찾아 막판 지원유세에 나선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한 대표는 15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섰다. 12일 부산 지원 유세 이후 사흘 만이고 지난달 28일 첫 부산 방문을 포함하면 6번째 방문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한노인회 부산 금정구지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정구 중앙대로·장전역 일대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한 대표는 "금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진심을 다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16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화항쟁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앞서 12일에는 3시간 동안 7.3㎞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도보 유세'를 진행한 바 있다. 금정구는 보수 텃밭으로 평가됐으나 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가 김경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루면서 박빙 지역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한 대표는 부산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1심 속행 50차 공판에 출석했다. 기자들과 만난 그는 "보궐선거 전날이기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으나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잘하면 잘했다 (하고) 못하면 못했다 (하고) 이렇게 심판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다"며 "민주공화국 주권자가 되는 길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도 온라인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지 전남 영광·곡성 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 한 명을 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깨울 절호의 기회"라며 "오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러 간다. 제가 다하지 못할 야당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함께 대신해 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국격은 추락했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에게 들려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야권 내홍이 벌어졌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토대로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후보를 공천했으나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민주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장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갈등이 극에 달하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에 대해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양문석 "기생이냐" 발언 4일 만에 사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악인들을 향한 '기생'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양 의원은 "폄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4일 만에 사과했다.

양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생' 발언을 두고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0일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이뤄진 점을 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 이분들이 기생인가"라며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악인 신영희(오른쪽) 씨가 국악인 비하 발언 논란을 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탄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이영희 명인은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영부인도 저희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격려했다. 이분들도 저희 공연을 보셨으니 그 자리를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만평 화필살인(畵筆殺人)

"자본시장 발전 위해 금투세 폐지 여·야 협조해 달라"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당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성과를 언급하며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우리 국채가 포함되면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물길이 열렸다"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채 수요가 안정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도 원활해져 원화 가치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수 점검이 가능해지며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주주 친화적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이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정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